2027학년도 CERMONT 첨예 모의고사 문제지 1회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의 기준을 탐구하고 그 기준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세워,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진술이 사실을 서술하는지 아니면 말하는 이의 태도를 표현하는지를 따지고, 도덕적 정당화가 어떤 논리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가) : 사회별 도덕 관습을 서술하는 것이다.
② (가) : 도덕 판단이 사실 판단으로 환원되는지 따지는 것이다.
③ (나) : 도덕 언어와 추론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 옳고 그름의 보편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도덕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유전자 치료는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 줍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치료라면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 을 : 동의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체세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치료는 그 영향이 당사자에게 그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갑 : 그렇습니다. 나아가 치명적인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해 생식 세포를 치료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후손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을 : 아닙니다. 생식 세포 치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의 유전 형질을 그들의 동의 없이 바꾸는 일이므로,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① 유전자 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가?
② 체세포 치료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③ 생식 세포 치료는 후손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④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개입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⑤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한 생식 세포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연자

> 문화 산업의 상품은 공장에서 규격품을 찍어 내듯 정해진 틀에 따라 생산됩니다. 유행가의 후렴구는 서로 바꾸어 끼워도 될 만큼 규격화되어 있지만, 문화 산업은 사소한 차이를 덧붙여 상품마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대중은 자유롭게 고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짜인 틀 안에서 고를 뿐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스스로 사고할 필요가 없도록 반응까지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 결과 예술이 지녔던 현실 비판의 힘은 사라지고, 대중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됩니다.

① 대중은 문화 상품을 고르는 일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한다.
② 문화 상품의 개성은 규격화를 가리는 외양일 수 있다.
③ 대중의 즐거움은 미리 정해진 반응에서 벗어나 있다.
④ 대중 예술의 확산은 예술의 현실 비판 기능을 강화한다.
⑤ 문화 산업은 대중의 자율적 취향에 따라 상품을 만든다.

4.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소와 말의 네 발은 하늘이 준 것이지만, 말 머리에 고삐를 매고 소 코에 코뚜레를 꿰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다.
> (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므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나와 남, 사람과 다른 생명을 가르는 분별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처럼 여겨 해치지 말아야 한다.

① (가) : 만물의 귀천은 인간의 쓰임에 따라 정해진다.
② (가) : 인위를 더해 자연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③ (나) : 불변하는 자아를 확립해야 자비가 가능하다.
④ (나) : 연기를 깨달으면 분별을 넘어선 자비가 가능하다.
⑤ (가)와 (나) : 사람과 다른 존재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어떤 개체가 믿음과 욕구, 기억과 미래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좋거나 나쁘게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는 타자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이 가치는 더 많고 적음이 없이 동등하다. 그러므로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며, 타자의 이익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대우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 실험이 인류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주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실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①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게 지는 간접적 의무이다.
② 이익 평등 고려로 동물의 지위는 충분히 보장된다.
③ 실험의 이익이 손해를 넘어서면 실험은 허용될 수 있다.
④ 내재적 가치의 크기는 이성 능력에 비례한다.
⑤ 개체의 권리는 이익의 총합을 늘리기 위해 침해될 수 없다.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자들에게**
> 우리는 흔히 보편적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도덕의 핵심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부모가 곧바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의무를 따지기 이전에 타인을 보살피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 관심을 상대방에게로 옮겨 그의 처지에 몰입하고, 그의 필요를 이루어 주려는 동기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늘 저절로 우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려를 주고받았던 기억과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상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배려받는 사람이 그 배려를 알아차리고 반응할 때 비로소 배려의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그 반응이 똑같은 크기의 보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 하나로도 충분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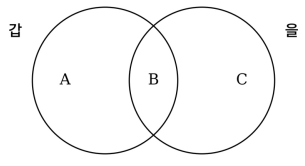
① 배려의 관계는 배려받는 사람의 반응으로 완성된다.
②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보다 근원적이다.
③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의 필요를 자기 기준으로 규정한다.
④ 도덕 판단은 구체적 관계를 배제할수록 성숙해진다.
⑤ 배려받는 사람은 받은 배려를 같은 크기로 보답해야 한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자연에 대한 책임은 자연이 권리나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염과 자원 고갈을 막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과 후손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민주적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윤리를 만들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을 : 오염과 자원 고갈만을 다루는 것은 얕은 대응이다. 모든 생명체는 인간에게 유용한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번영할 동등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지니며, 인간은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의 풍요로움을 해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아실현을 통해 세계관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환경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윤리는 필수적이지 않다.
ㄴ. B :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다.
ㄷ. B : 인간 외의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ㄹ. C : 인간의 필수적 필요를 위한 생명 침해도 금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천하가 어지러운 까닭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보기를 자기 나라 보듯 하고, 남의 집안 보기를 자기 집안 보듯 하며, 남의 몸 보기를 자기 몸 보듯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여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
> 을 : 이익을 앞세우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왕은 오직 인(仁)과 의(義)를 말해야 한다. 내 집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집 어른에게 미치고, 내 집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집 아이에게 미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① 갑 : 서로 이롭게 하는 일은 사랑의 실천을 해친다.
② 갑 : 사랑은 혈연의 친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③ 을 :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넓혀야 한다.
④ 을 : 백성의 생업 보장보다 인의의 교화가 앞서야 한다.
⑤ 갑과 을 : 어버이 사랑을 남에게 같은 정도로 베풀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을 존중하는 것보다 옳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법이 나에게 남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야 한다.
> 을 :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협력의 조건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는 실질적이고 명백한 부정의에 대해, 정치적 다수를 향한 정상적 호소가 실패한 뒤에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① 갑 : 국민의 의무는 인간의 양심보다 우선한다.
② 갑 : 부정의를 돕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끊을 수 있다.
③ 을 :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다.
④ 을 : 불복종은 합법적 호소에 앞서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각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가 그것에 부여한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그 의미가 분배의 기준을 결정한다. 의료는 필요에 따라, 공직은 자격에 따라, 상품은 시장에서 분배되는 식이다. 문제는 어떤 가치가 불평등하게 소유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특정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차지하는 데 있다. 돈으로 공직과 명예를 살 수 있는 사회가 부정의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곧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난다.

① 가치가 불평등하게 소유되면 그 자체로 부정의가 성립한다.
② 분배 기준은 사회적 가치의 고유한 의미로부터 독립적이다.
③ 기본 구조의 단일 원칙으로 모든 가치를 분배해야 한다.
④ 모든 가치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지배를 막는 길이다.
⑤ 부를 근거로 의료 영역에서 우선권을 얻는 것은 부정의하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가장 극악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 종신 중노동은 겉보기에는 덜 가혹해 억제력이 약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형보다 더 잔혹하다. 형벌의 억제력은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가보다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
> 을 : 누구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형벌의 강렬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막는 데에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보 기>

ㄱ. 갑 : 사형은 종신 중노동보다 실제 고통이 작으면서 억제력은 클 수 있다.
ㄴ. 을 : 사회 계약은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ㄷ. 을 : 형벌의 억제력은 일시적 강렬함에 비례한다.
ㄹ. 갑과 을 : 형벌을 평가할 때 억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전통 윤리에서 책임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전제했다.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는 아무런 권리도 요구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보답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기술 시대의 인간은 그들의 존재 조건을 좌우할 힘을 가졌기에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원형은 갓난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같은 비상호적 책임이다.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첫째가는 명령이며, 현세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를 저버릴 수 없다.

<보 기>

ㄱ.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책임이 성립한다.
ㄴ. 책임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관계를 전제한다.
ㄷ. 인류의 존속은 현세대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다.
ㄹ. 인류 존속의 명령은 미래 세대의 동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3.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주권자는 신민들이 서로 맺은 계약으로 세워지므로 스스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주권이 나뉘면 나라는 다시 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주권은 결코 분할될 수 없습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양도될 수도,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통치자는 인민의 주인이 아니라 인민이 위임한 공무원이므로 인민은 원할 때 그들을 세우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을

<보 기>

ㄱ. 갑 : 주권자의 계약 위반은 복종 의무를 해제한다.
ㄴ. 갑 : 주권은 신민 상호 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ㄷ. 을 : 일반 의지는 개별 의지들의 총합이다.
ㄹ. 갑과 을 : 주권은 나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나라는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로 이루어지며, 각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정의롭다. 통치자의 자식이라도 자질이 부족하면 생산자의 자리로 보내고, 생산자의 자식이라도 자질이 뛰어나면 수호자의 자리로 올려야 한다.
> 을 : 사적 소유 아래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노동 활동으로부터, 인간다운 본질로부터,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은 본래 자신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활동이지만 여기서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① 갑 : 직분은 출생이 아니라 자질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갑 : 정의는 각 계층이 일을 번갈아 맡을 때 실현된다.
③ 을 : 사적 소유 아래의 노동은 자기실현 활동이다.
④ 을 : 노동의 소외는 임금이 오르면 해소된다.
⑤ 갑과 을 : 노동의 가치는 보수의 크기로 결정된다.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성품의 탁월성은 습관을 통해 형성되며,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을 겨냥한다. 이 중간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간으로,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행위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 상황>
A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B가 다른 친구를 공개적으로 놀리는 것을 보았다. A는 못 본 척 넘어갈지, 모두가 보는 대화방에서 B를 거칠게 비난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상황을 헤아려 마땅하게 행동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②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악덕임을 명심하세요.
③ 누구에게나 같은 행동이 중용임을 명심하세요.
④ 옳은 일을 알면 실천은 저절로 따라옴을 명심하세요.
⑤ 관련자들의 쾌락 총량을 계산하여 행동을 정하세요.

1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 2026년 □월 □일
>
>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하여**
>
>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와 창작물은 앞선 세대가 쌓아 올린 지식을 딛고 만들어진다. 디지털 정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이를 소수가 배타적으로 통제하면 이용 기회가 불평등해지고 새로운 창작의 토대도 좁아진다. 카피레프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목할 점은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누구나 작품을 복제하고 고쳐 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에도 같은 자유를 보장하도록 조건을 건다. 저작권을 이용해 공유의 자유를 지켜 내는 셈이다.

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② 정보 공유는 저작권을 활용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
③ 정보를 배타적으로 통제할수록 창작의 토대가 넓어진다.
④ 카피레프트의 결과물은 다시 독점되어도 무방하다.
⑤ 앞선 지식을 활용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모든 좋음과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바르게 알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 수 있다.
> 을 : 인간은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이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지만, 일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말로 이를 덮어 버린다. 자신의 죽음을 앞질러 마주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① 갑 :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비해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
② 갑 : 살아 있는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악이다.
③ 을 : 타인의 죽음으로 자기 죽음을 대신 경험할 수 있다.
④ 을 : 본래적 삶을 살려면 죽음을 외면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죽음의 이해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폭력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폭력은 가해자가 드러나는 물리적, 언어적 해악이다. 구조적 폭력은 특정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스며들어 억압과 착취, 불평등한 삶의 기회를 낳는다. 문화적 폭력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등 문화의 여러 측면을 통해 앞의 두 폭력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이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가 적극적 평화이다.

① 전쟁이 끝나면 적극적 평화는 달성된 것이다.
②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다.
③ 민족의 우열을 주장하는 사상은 폭력의 한 유형일 수 있다.
④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사라질 때 실현된다.
⑤ 직접적 폭력이 없으면 구조적 폭력도 사라진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표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의무는 그 사회가 적정한 제도를 갖추어 스스로 정치적 삶을 꾸려 갈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한 사회의 빈곤은 주로 그 사회의 정치 문화에 기인하므로, 사회 간 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 자체는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 을 : 오늘날의 심각한 빈곤은 불운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이 주도해 만든 세계 제도 질서가 낳은 결과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있다. 천연자원을 쓰는 몫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지구 자원 배당으로 빈곤을 줄여야 한다.

(나)

질문	갑	을
A	예	예
B	예	아니요
C	아니요	예

<보 기>

ㄱ. A :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다른 사회의 의무가 있는가?
ㄴ. B : 빈곤의 주된 원인은 각 사회의 내부 요인인가?
ㄷ. B : 사회 간 격차 해소 자체가 원조의 목표인가?
ㄹ. C : 세계 제도 질서가 빈곤의 주된 원인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갑 : 성숙한 성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함께해야 하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
> 을 : 자발적 합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적 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인격적 의미를 지닙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① 갑 : 혼인은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필수 기준이다.
② 갑 :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을 : 합의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성적 관계는 정당하다.
④ 을 : 혼인 관계가 아니면 사랑이 있어도 허용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 성적 관계의 정당성은 출산 가능성에 달려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